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	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0.2.26(수)	

책 임 자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선 욱(02-2100-2860)	담 당 자	안 남 기 사무관 (02-2100-2862)
	산업은행 여수신기획부장 김 영 진(02-787-6901)		곽 효 식 팀장 (02-787-6906)
	기업은행 전략기획부장 김 태 형(02-729-7471)		박 진 현 팀장 (02-729-6321)
	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장 강 정 수(02-3779-6261)		이 재 락 팀장 (02-3779-6267)
	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장 오 재 택(053-430-4101)		강 종 신 수석부부장 (053-430-4103)

제 목 :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당국과 정책금융 기관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.

- ☐ '20.2.26(수), 정책금융기관장 조찬 간담회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現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.

* 일시/장소 : '20.2.26.(수) 08:00 / 뱅커스클럽

참석자 : (금융위) 위원장, 사무처장, (정책금융기관) 산은·기은·수은 기관장

※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부 지휘로 불참하였으며, 관련 회의내용을 별도로 공유하였음

- ☐ 금융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지난 2.7일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마련한 신규자금 20조원*의 집행실적을 점검하고, 차질없는 이행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

* 산은 0.3조, 기은 0.1조, 수은 1.0조, 신보 0.3조, 중진공·기보 등 0.3조원

- 이동걸 산은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다면서, “금융애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.
- 윤종원 기은 행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과 더불어 기업은행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“착한 임대료*”를 소개하며, “현장에서 자금지원 효과가 확실하게 체감되도록 직접 챙겨보겠다”고 강조하였습니다.

* '20.3월~5월, 기업은행 보유 건물의 임대료를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% 인하

- 또한 수은 방문규 행장도 “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겠다”고 언급하였습니다.
- 한편 윤대회 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대구에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지역현장상황을 직접 살피고 있으며, “현재 시행중인 코로나 피해기업 우대보증과 주력산업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하여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전해왔습니다.
-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, 국민들의 점점인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.
- 정책금융기관장들은 비상시국이니만큼 추가적인 코로나19 관련 경제활력 회복대책을 마련하는데도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
- 아울러, 금융당국도 금번 지원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- 우선, 일선 현장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대한 확실한 면책을 강조하였습니다.

*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면책 관련 공문시행(2.18일, 금융위·금감원)

- 정책금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시, 코로나19 지원에 따른 이익 감소분은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, 지원노력은 가점 등을 통해 추가로 감안하는 등

-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따른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, 기획재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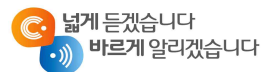
* 「2020년 국책은행 경영실적 평가지침」 개정('20.3월 예정)

- 한편,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에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